

봄을 맞이하며 들을 만한 클래식



글_고병원·고등과학원 물리학부 교수

고전음악 또는 클래식의 범주에 속하는 곡 중에서 봄에 듣기 좋은 곡을 몇 곡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어떤 곡을 선택할까 잠시 고민을 해 보았다. 먼저 곡명에 봄이 들어가는 곡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 곡들은 대부분 많이 알려져 있는 곡들이라서 굳이 여기서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몇 곡만 간단히 소개한다.

- ◆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 ◆ 멘델스존의 봄 노래
- ◆ 비발디의 사계 중 봄: 가장 유명한 연주는 물론 Pina Carmirelli가 바이올린 독주를 한 이 무지치 합주단일 것이다. 그외에도 트레버 피녹이 이끄는 영국 실내악단 (English Chamber Music Orchestra) 등의 수많은 명연주를 들 수 있겠다.
- ◆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 이작 펠만과 아쉬케나지,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와 레프 오보린, 그리고 볼프강 슈나이더한과 켐프의 공연들이 잘 알려져 있다.
- ◆ 슈만의 교향곡 제1번 봄
- ◆ 코플랜드의 애플래치아의 봄 조곡
- ◆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산타페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두 번 참가한 적이 있었다. 이 지역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붉은 사막지대로서 조지아 오키프라는 여성 화가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산타페에서는 여름 오후에 항상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한두 시간 내리곤 한다. 드넓은 붉은 대지 위에 번개가 번뜩이고 천둥소리가 우르릉거리면 다른 곳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원초적인 느낌이 강하게 든다. 내 몸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들으면 모든 것이 너무 잘 어울린다. 정말로 원시인들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피의 제전을 벌이는 환상이 떠오르곤 한다.

그리고 별명이 없거나 곡명에 봄이 없는 곡들이지만, 싱그러운 봄날에 듣기 좋은 곡들을 몇 곡 더 자세히 소개하려고 한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봄비 오는 날

필자가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처음 들은 것은 중학교 때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인 김영옥의 연주가 담긴 LP 판을 통해서였다. 그 판에는 1번 G장조와 3번 D단조 소나타 두 곡이 실려 있었는데, 1번은 비 내리는 봄날에, 3번은 가을에 듣기에 좋은 곡이라고 생각한다. 이 곡은 필자가 유학할 때 기숙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친구를 알게 되어 함께 맞춰보다가 잘 안되던 기억이 난다. 바이올린 부분도 어렵지만 피아노 파트도 이전 시대 작곡가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웠던 기억이 난다. 물론 브람스의 피아노곡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슈베르트의 피아노곡들보다는 까다로운 편이긴 하지만, 피아노의 으뜸화음 유니슨 위에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이 수줍게 따라나오면서 곡이 전개되어 점점 열정적으로 달아오른다. 필자의 경우에는 처음 접한 연주가의 연주가 오래 기억되는 경우가 많은데,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도 김영옥의 연주를 아직도 가장 좋아한다. 그 외에도 아이작 펠만, 핑커스 주커만,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볼프강 슈나이더한 등의 연주도 훌륭하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봄밤에

베토벤은 모두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했는데 그중에 28번부터 32번까지의 5곡이 만년에 작곡되었다. 이때는 베토벤이 이미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로서 어떻게 작곡이 가능했는지 신기할 정도인데, 만년에 작곡된 곡들을 들어보면 선율의 아름다움이나 서정성들이 너무나 뛰어나고 이전의 음악에선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라, 어떻게 소리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런 곡들을 작곡할 수 있었나 놀랄 수밖에 없다. 특히 그 곡들은 단순히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다른 곡들에서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뭔가 종교적인 느낌을 주는데, 아쉽게도 필자의 짧은 필설로는 그 느낌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 피아노 소나타 30번은 화려한 느낌을 주는 마장조 곡의 세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1악장은 환상곡 풍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아름다움과 슬픔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느낌을 준다. 2악장은 긴장감을 주는 역동적인 짧은 악장으로 마단조로 되어 있다. 마지막 악장인 3악장은 변주곡 형식으로서 주제와 6편의 변주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베토벤은 만년에 변주곡 형식과 푸가, 그리고 굉장히 긴 트릴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 곡의 마지막 악장도 그중의 하나이다. 주제는 낭만적이고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한 편의 노래이며 봄밤에 어울리는 느낌을 준다. 등불 아래 활짝 피어난 목련이나 벚꽃을 보며 듣기에 어울린다고나 할까. 이 주제가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3악장은 느리게 시작하

여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코다에 이르러 다시 처음의 주제를 잠시 되새기다가 조용히 사라지게 된다. 많은 피아니스트들의 연주가 있지만 내가 특히 좋아하는 연주는 폴리니(Pollini), 켐프(Kempff), 박하우스(Backhaus)의 연주들이다.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 봄밤에

많은 독일 가곡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곡은 아마도 슈만의 '시인의 사랑'일 것이다. 슈베르트의 가곡들도 물론 좋지만 서정성이나 성악과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들과 멋진 어우러짐에 있어서는 슈만의 시인의 사랑을 따라가기 힘들 것이다. 필자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악하는 친구와 함께 이 연가곡 중의 몇 곡을 연습했던 기억도 이 연가곡에 대한 애착을 크게 해 준다. 이전의 노래에서 피아노가 주로 성악의 반주역할에 치중한 것에 비해서 슈만의 가곡들에서는 피아노와 성악이 거의 동등하게 서로 독자적인 노래를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 곡은 모두 16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랑에 빠진 젊은 시인이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첫 곡의 제목은 '아름다운 5월의 밤에'로 필자가 봄밤에 듣기 좋다고 한 이유가 되는 곡이다. 이 곡을 시작으로 16곡의 노래들이 봄밤의 꿈같이, 흐르는 물같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 연가곡을 부른 이들이 많지만 나는 특히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Fritz Wunderlich)의 노래를 좋아해서 옛날에는 LP로 가지고 있다가 CD가 나왔을 때 다시 구입하였다. 분덜리히의 음색은 맑고 화려하며 따뜻해서 사랑과 실연에 빠진 시인의 마음을 적절히 표현하는데 너무나 잘 어울린다. 그 외에도 헤르만 프라이나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의 음반도 좋지만 음색이 약간 차분하기 때문에 따뜻함이 덜하다고 느껴진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D. 960: 봄밤에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들은 그의 가곡들처럼 서정적인 멜로디가 특징이며, 내게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적으로 느껴진다. 그중에 제일 마지막 소나타인 내림 바단조 D. 960은 동일한 조성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9번 합머 클라비어만큼이나 스케일이 큰 곡이지만, 긴장감이 덜하며 복잡한 푸가가 아

닌 서정적인 노래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봄밤에 듣기 편한 곡이다. 하지만 작곡가의 만년에 작곡된 만큼 뭔가 내면적인 독백과 사유를 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앞에서 소개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및 후기 소나타들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절제된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선율로 이루어진 1악장, 탄식하는 듯 시작했다가 활기를 띠는 2악장, 쾌활하면서도 약간은 변덕스런 3악장 스케르초를 거쳐, 단조의 분위기로 시작해서 원조인 내림 바장조로 끝나는 거대한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곡 역시 많은 피아니스트에 의해 연주되었지만 필자가 좋아하는 연주는 마우리치오 폴리니(Maurizio Pollini)와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Sviatoslav Richter)의 연주이다. 두 사람의 타건은 거의 극과 극이라 할 만큼 뚜렷한 차이가 있다. 폴리니의 소리는 맑고 영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특히 고음부(트릴을 포함해서)에서 그 진가가 나타난다. 반면에 리히터의 터치는 너무나 강렬하고 드라마틱하여 완전히 다른 느낌을 선사하지만 나름대로의 멋과 깊이가 있다.

그리고 보니 봄비가 올 때 또는 봄밤에 듣기 좋은 곡들만 추천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화창한 봄날에 듣기 좋은 곡을 한두 곡 더 말씀드리려고 한다. 우선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의 2악장,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곡 '알프스', 비발디의 '화성의 영감' 등 많은 곡들이 떠오르지만, 그중에서도 브람스의 교향곡 2번은 요즘같이 화창한 봄날 연초록으로 물든 산과 숲을 바라보며 듣기에 적합한 곡이 아닐까 싶다. 이 곡은 베토벤의 '전원교향곡'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낭만과 시대의 곡답게 좀 더 부드럽고

자유로우며 목가적인 느낌을 준다. 관악합주로 시작되는 따뜻한 선율을 현이 받아서 노래하는 1악장은 매우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어지는 악장들 역시 그러하다. 브람스 교향곡을 연주한 지휘자와 오케스트라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오이겐 요훔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칼 뵘이 지휘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즐겨듣는다. [KIAS](#)

